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옛 주택가 개조사업 경험으로 '무장애환경' 건설을 선도

산업·경제 -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 확산

사회·복지 -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친환경 노숙인 자립센터

도시교통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그린 루프 프로젝트

- 대중교통요금 일부 캐시백으로 대중교통 이용 독려

정보·기타

- 부자가 되기 전에 늘어 버리는 중국의 수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	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옛 주택가 개조사업 경험으로 ‘무장애환경’ 건설을 선도

중국 충칭시 / 사회·복지

충칭시는 2020년부터 시 전역에서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전면 시행해 왔음. 그 과정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 반경 곳곳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는 무장애환경 건설에 주목하게 됨. 이에 2022년 1월부터 중국 도시 중 최초로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시행해 왔고, 올해 9월 1일부터는 중국 정부가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시행함. 충칭시는 9월 26일 대대적인 도시 개조와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옛 주택가 개조사업’도 발표

올해 9월 1일부터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시행한 중국

- 9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무장애환경건설법(無障礙環境建設法)’을 반포하여 시행
 - ‘무장애환경건설법’은 2022년 10월 27일에 초안을 마련하여 3차 심의를 거쳐서, 2023년 6월 28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됨
 - 모두 8장 72조로 구성. 장애인, 노인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하고 편리하며 충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위해 무장애환경 건설을 촉진하는 법률임
 - 과거 ‘장애인보장법(殘疾人保障法)’과 ‘무장애환경건설조례(條例)’로 나뉘어져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최근 사회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수많은 법률 조항과 조문을 대거 수정하거나 신설함
 - 시설 건설, 정보 교환, 사회 서비스, 보호 조치, 감독 관리 등 측면에서 무장애건설 환경과 법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갖추어 ‘인민이 최우선(人民至上)’이라는 통치 이념을 구현하는 사회 시스템
 - 따라서 ‘무장애환경건설법’의 핵심 가치는 ‘(무장애시설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에서 ‘(시설이)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로의 발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어떻게 하면 장애인, 노인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혜택을 받아서 일반 성인과 똑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처음 시행한 충칭시

- 충칭시는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2021년 11월에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無障礙環境建設與管理規定)’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음

- 기존의 ‘무장애환경건설조례’가 오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었다면, ‘무장애 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은 중국에서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급속히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인층과 어린이를 대상에 더하여 법률 체계와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세분화함
 - 그에 따라 충칭시는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모두 6장 45조로 마련했는데, 이번 ‘무장애환경건설법’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됨



[그림] 충칭시의 한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관람부스 (출처: 충칭일보)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통해서 무장애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 충칭시는 2018년부터 일부 구에서 옛 주택가를 개조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2020년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함
 - ‘옛 주택가 개조사업’은 최근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
 - 이를 위해서 ▶옛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옛 주택가에 양로 및 육아 시설을 새로 개조하거나 확충했으며 ▶옛 주택가에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 시설을 보수했음 (※ 관련 내용은 세계도시동향 제535호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옛 주택가 개조사업 시행’에서 소개)

- 충칭시는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층, 어린이 등을 위한 무장애 주거환경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중국 최초로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
- 지난 9월 26일 충칭시는 대대적인 도시 개조와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발표
 - 충칭시 주택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규획과 자연자원국은 관할 구와 현(縣)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59개 개조사업 프로젝트에 약 2,743억 위안(약 50조 9,457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59개 프로젝트는 이전과 달리 ▶종합유형 ▶구획개조유형 ▶도시마을유형 등 3가지로 분류해서, 종합유형은 32개, 1,511억 위안을 투자하고 구획개조유형은 19개, 740억 위안을 투자하며 도시마을유형은 8개, 492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공표

https://www.cqcb.com/yukuaibao/2023-09-26/5383764_pc.html

https://www.cqcb.com/yukuaibao/2023-09-16/5375566_pc.html

http://news.cqnews.net/1/detail/1151189951874682880/web/content_1151189951874682880.html

<https://baike.baidu.com/item/中华人民共和国无障碍环境建设法/60994851>

http://admin.cq.gov.cn/zwgk/zfxgkml/szfwj/zfgz/zfgz/202112/t20211201_10091907.html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 확산

인도 / 산업·경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일부 주정부는 여성 가구주를¹⁾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하고 있음.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보전하며 여성 기본권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정책 배경

- 인도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 2029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의회에서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의무 배정할 예정이며, 델리 NCT 지역 등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운영하는 일부 대중교통을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여성 우대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장기노동력조사(PLFS)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34% 정도 낮게 나타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위치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함
 - 인도는 평등임금법(Equal Remuneration Act)이 발효되어 성별 임금에 대한 구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함

주요 내용

- 올해 9월부터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타밀나두(Tamil Nadu)주 정부는 서벵골(West Bengal)주,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정부에 이어 해당 정책을 펴는 세 번째 지방정부임. 인도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여성 대상 기본소득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사례 1: 서벵골주 정부의 여성 가구주 대상 기본소득제도
 - 서벵골주 정부는 2021년에 지역 내 1,600만 가구의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락쉬미르 여신의 보조금(Lakshmir Bhandar) 정책을 발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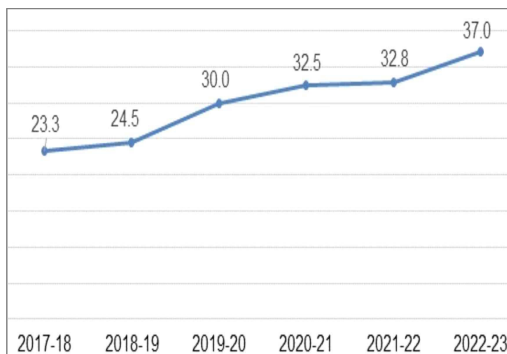
1) 이 원고에서 여성 가구주는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포함된 가구 내의 여성으로서 일반적인 호주 또는 가구 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별 여성 대표자로 이해하면 됨

- 1,300억 루피(한화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 일반 가구주와 하위 카스트 그룹(SC/ST) 가구주 여성에게는 각각 500루피(한화 8,000원)와 1,000루피(한화 1만 6,000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지역 가구 내 평균 소비액은 약 5,000루피 수준으로 일부 보전하는 수준임
 - 일정 소득세를 기록하거나 2헥타르(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일반 가구주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2022년 기준으로 50만 가구에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처럼 여성 가구주 중심으로 지급하면,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450만 상류층 가구를 제외한 중산층 포함 80% 수준인 1,60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만큼 상당수의 여성이 가구별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됨
- 사례 2: 마디아프라데시주 정부의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도
- 해당 정부는 사랑받는 여성 계획(Ladli Bahna Yojana)을 발표하며 2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당 월 1,000루피(한화 1만 6,000원)를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2023년 3월에 도입함
 - 이 정책을 활용해 여성의 건강이나 영양 상태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 가족 소득이 25만 루피(한화 400만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5헥타르(ha) 넘게 소유하면 본 혜택에서 제외됨
 - 현재 1,300만 명의 지역 여성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단기적으로 1,300루피(한화 2만 1,000원)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3,000루피(한화 4만 9,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에 있음
- 사례 3: 타밀나두주 정부의 여성 가구주 대상 기본소득제도
- 타밀나두주 정부는 칼라이나르 여성 권리 보조계획(Kalaigal Magalir Urimai Thogai Thittam) 계획을 발표하며 9월 15일부터 지역 내 21세 이상 1,100만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함
 - 매월 1,000루피(한화 1만 6,000원)를 제공할 예정으로 주정부는 700억 루피(한화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본 혜택은 고소득자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또는 자동차 소유자 등의 기준에 속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특징임

정책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부 주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마다 여성에 대한 기본소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주정부에 따라 일부 다른 성격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있음

- 지방정부별 성격, 인구수,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음
- 펀자브(Punjab)나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정부도 여성 대상 기본소득 제공을 검토 중으로 인도 내 여성에 대한 기본소득제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인도의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는 남성을 기본으로 고소득자와 상위 자산가를 제외하고 여성이 포함된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는 다소 결을 달리함
- 지방정부마다 교육비 보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 우대 정책이 있는 만큼 이들 정책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지역 내 여성 삶의 질 개선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이 정책은 인도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며 한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구조를 고려하여 대상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반영한다면 좋은 선례라 판단됨



[표]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PLFS, %)



[사진] 인도 여성 근로자 사진

(출처: The Leaflet)

<https://dge.gov.in/dge/PLFS-Dashboard>

<https://www.fortuneindia.com/macro/mp-punjab-tamil-naduuniversal-income-scheme-catching-with-states/112117#:~:text=Under%20this%20scheme%2C%20each%20woman,than%20five%20acres%20of%20land.>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bhopal-news/unmarried-women-above-21-yrs-of-age-included-under-mp-s-ladli-behna-scheme-101695458852912.html>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tamil-nadu-to-launch-basic-income-scheme-for-women-on-september-15-news-317851>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67291>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tamil-nadu/tn-will-be-the-third-state-to-implement-a-basic-income-scheme-for-women/article67083804.ece>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tamil-nadu/tn-womens-basic-income-scheme-106-crore-women-selected-to-benefit/article67294785.ece>

<https://www.theleaflet.in/women-workers-numbers-decline-in-india-due-to-economic-slowdown-after-pandemic/>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lkata/bengal-mthly-income-scheme-for-women-heads-from-sept-1/articleshow/84661872.cms>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lkata/bengal-nod-for-women-income-scheme-edu-credit/articleshow/82923538.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친환경 노숙인 자립센터

말레이시아 페낭주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페낭주 사회복지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트리플 넷제로 노숙인 자립센터’를 개관. 숙식과 취업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노숙인 자립센터를 운영

배경

- 주거비 상승과 코로나19로 노숙인 숫자 증가
 - 싱가포르 부동산 전문 회사 나이트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페낭주의 주택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5.78% 증가
 - 이는 동남아시아 25개 도시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
 -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시의 동기간 주택 임대료 증가율은 0.34%
 -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숙인 수
 - 2000년~2009년 말레이시아 전역의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숫자는 1,300여 명이며 2015년~2019년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숫자는 1만 4,863명으로 약 10배 증가
 - 말레이시아 언론사 말레이시아키니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말레이시아 전역에 노숙인 숫자가 20~3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페낭주 사회복지부(Penang Social Welfare Department)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페낭주 정부는 공공화장실, 거리 등 노숙인 생활 여부를 점검해 총 458건의 노숙인 구조를 진행해 592명을 구조
 - 2022년 페낭주 정부의 랜드마크인 콤타(Komtar)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페낭주 조지타운시를 근거지로 삼은 노숙인 숫자는 200~300명가량으로 추정

트리플 넷제로 노숙인 자립센터

- 페낭주 최초의 노숙인 자립센터
 - 페낭주 정부는 트리플 제로 노숙인 자립센터(Triple net zero homeless transit centre)에 440만 링깃(약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할당하고 1,370제곱미터(square meters·약 415평) 규모의 건물을 지원

- 폐낭주 정부로부터 받은 건물을 개조·보수해 트리플 넷제로 노숙인 자립센터 설립
- 거리의 시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 2016년 폐낭주 사회복지부와 비정부기구는 거리의 시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mpowering The Streets Citizens)의 하나로 트리플 넷제로 노숙인 자립센터 설립을 논의
 - 2020년 3월 트리플 넷제로 노숙인 환승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지연
 - 당초 2021년 10월 완공 후 2022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령으로 완공이 지연되면서 2023년 8월 1일 개관
 - 3층 건물로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

목적과 운영 방식

- 노숙인에게 일시적인 숙식과 자립 기반을 마련
 - 노숙인들은 최대 14일 동안 숙박이 가능
 - 3층 규모의 센터에 객실이 78개(남성용 객실 60개, 여성용 18개) 있으며 총 88개의 침대 보유
 - 스스로 세탁방, 건조실, 주방, 샤워실, 휴게실, 세미나실, 무료 진료소, 기도실 등 시설 완비
 - 옥상 농장, 카페, 오락 활동 공간, 마당 등의 여가 공간 마련
 - 노숙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워터 스테이션(Water Station), 음식과 필수물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Food Bank), 학생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카페, 미술관 운영
-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 입소 기간(최대 14일)에 노숙인들에게 흥미에 맞는 직업 훈련을 제공해 자활·자립하도록 지원
 - 거리의 시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과 연계해 노숙인의 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센터
 - 트리플 넷제로(Triple net zero)는 쓰레기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탄소 배출량이 없는 제로 에너지(Zero Energy), 물을 아껴 쓰는 제로 워터(Zero Waste, Zero Water)를 실천한다는 의미
 -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재활용센터를 마련하고, 제로 에너지를 달성하고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사용

- 제로 워터의 하나로 빗물이용시설(rainwater harvesting system)을 활용해 빗물을 용수로 사용
- 저탄소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등급(Green Building Index, GBI)을 준수하기 위한 설계와 건축 공정을 적용

효과와 의의

- **주정부 차원의 첫 노숙인 자립센터 신설**
 - 트리플 넷제로 노숙자 자립센터는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주정부 차원의 첫 사업
 - 그동안 페낭주에서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YWAM)의 카완(Kawan) 프로그램, 비정부기구(PERTIWI)의 수프 키친(Soup Kitchen) 등 민간 중심의 사업이 활성화
 - 페낭주 정부가 노숙인 문제를 개인의 측면이 아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인식해 노숙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주거·의료 문제를 해결해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이 안락할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이 장기간 방치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가능성에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모색해 친환경 문화를 조성**
 - 태양광 발전 설비를 증축해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빗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노숙인센터 운영
 - 기후 위기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만큼 친환경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한 노숙인센터는 친환경·에너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세계 도시의 중요한 가치척도로 자리 잡은 친환경 정책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



[사진] 트리플 넷제로 노숙인 자립센터 조감도 (출처: Juice Online)

<https://www.buletinmutiara.com/transit-centre-for-homeless-in-penang-to-adopt-net-zero-strategies/>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3/06/16/penangs-rm44m-transit-centre-a-beacon-of-hope-for-the-homeless/74644>
<https://penangfoodie.com/penang-first-transit-center-homeless-2022/>
<https://www.thesundaily.my/local/penang-to-build-first-transit-centre-for-the-homeless-HH2090801>
<https://www.malaysiakini.com/news/513661>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3/09/04/set-up-one-stop-centre-to-help-the-homeless-govt-urged/>
<https://www.malaysiakini.com/letters/663151>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08/17/homing-in-on-the-homeless>
<https://www.penangpropertytalk.com/2023/09/penangs-residential-prices-grew-5-78-in-1h2023-2nd-best-in-southeast-asia/>
<https://penang2030.com/2023/10/penangs-sheltering-arms-a-homeless-transit-centre/>

홍 성 아 통신문, tjddk4277@gmail.com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그린 루프 프로젝트

미국 포틀랜드시 / 도시교통

포틀랜드는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주거 밀집 지역과 주변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통행 공간을 조성하는 포틀랜드 그린 루프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 중에 첫 공공 기반시설인 블루메나우어 다리를 2022년에 완공함. 블루메나우어 다리는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으로, 최근 성장하는 도심 상업 지구와 포틀랜드 대표 쇼핑몰을 연결하고 있음

프로젝트 배경

- 그린 루프(Green Loop) 프로젝트의 첫 공공 기반시설
 - 그린 루프 프로젝트는 포틀랜드 센트럴 시티(Central City)에 밀집한 저렴한 주택들과 시내 주요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 다양한 활동적 교통수단(Active Transportation Mode)의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포틀랜드를 관통하는 윌래밋 강(Willamette River)과 주간고속도로(interstate)로 끊어진 도로 네트워크 연결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주요 상권 잇는 자전거·보행자 다리 건설
 - 빠르게 성장하는 로이드 쇼핑몰 센터(Lloyd Center)와 센트럴 이스트사이드(Central Eastside)를 연결
 - 84번 주간고속도로로 끊어진 포틀랜드 북동쪽 7번가를 잇는 약 155m 교량으로 2022년에 완공
- 활동적 교통수단 활용하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 차량을 위한 다리 건설이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킥보드(e-scooter)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다리 건설
 -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간고속도로 위로 통행로 구분·확보하여,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상대적 취약 통행자의 안전 보장



[그림] 84번 주간고속도로 위를 지나며 7번가 잇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

(출처: 포틀랜드 교통국)

시사점

- 다양한 소득계층 사람들의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증대
- 활동적 교통수단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위한 노력
 - 해당 공공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미 하원의원 얼 블루메나우어(Earl Blumenauer)의 수년간 정치적 옹호를 기리기 위해 다리 공식 명칭을 기존 설리번 다리(Sullivan's Crossing)에서 얼 블루메나우어 다리(Earl Blumenauer Bridge)로 변경

<https://www.portland.gov/transportation/pbot-projects/construction/congressman-earl-blumenauer-bicycle-and-pedestrian-bridge#toc-project-background>

<https://www.portland.gov/bps/planning/green-loop/about>

<https://www.portlandmaps.com/bps/greenloop/#map>

김 규 리 통신원, kyuri@pdx.edu

대중교통요금 일부 캐시백으로 대중교통 이용 독려

홍콩 / 도시교통

홍콩 정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금액 초과분의 1/3을 되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시행,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도시 내 대기오염과 혼잡 방지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배경

- 대중교통 이용은 도시 내 대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
- 특히 서울이나 홍콩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대기오염, 교통혼잡, 도시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큼
- 홍콩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는 통근자를 위한 캐시백 제도(Public Transport Fare Subsidy Scheme)를 운영 중
 - 서울시 유사 사업으로는 19~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현저히 작은 수준
 - 19~24세 청년 중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지원, 1년 기준 혜택 총액 10만 원 한도

홍콩 정부의 지하철 요금 보조의 주요 내용

- 홍콩은 전 국민이 교통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이 결합한 옥토퍼스(Octopus) 카드를 활용
 - 우리나라의 티머니(T-money) 카드와 유사하나, 옥토퍼스 카드는 거의 모든 식당, 편의점, 시장에서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널리 활용

Choose Your Octopus and Accessory



Octopus Ornaments

There is always an Octopus Ornament to match your lifestyle.



Special Edition Octopus

Check out the latest product in our growing collection now!



Cross Border Octopus

Octopus is in a partnership with different operators outside Hong Kong.



Licensed Octopus Products

From stylish watches to trendy accessories, there is an Octopus product to match your lifestyle.

[그림1] 다양한 옥토퍼스 카드 디자인

○ 일정 금액 이상의 교통비 초과분에 대한 현금 보조

- 각 지하철 통근자의 월간 총이용 금액이 200HKD(약 3만 4,500원)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1/3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에 다시 충전해 주는 식으로 환급
 - 어느 통근자가 한 달간 1000HKD를 지하철 이용 금액으로 지출했다면, 200 HKD를 초과하는 800HKD의 1/3금액에 해당하는 266.6HKD를 옥토퍼스 카드에 다시 충전시켜 줌. 이는 원 교통비에서 27%의 할인 효과

Example 1:		
Monthly public transport expense:	\$1000	
Public transport expense after deducting \$200:	$\$1000 - \$200 =$	\$800
Subsidy amount * :	$\$800 \times \frac{1}{3} =$	\$266.6
Actual transport expense taking into account the subsidy	$\$1000 - \$266.6 =$	\$733.4 (equivalent to 27% discount on original expense)

[그림 2] 환급 보조금 액수 계산 예시

- 매월 16일 이후 아무 때나 이용자는 지하철역 내 위치한 보조금 컬렉션(subsidy collection) 기계에 옥토퍼스 카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해당 보조금이 충전됨



[그림 3] 교통비 보조금 수령 기계

- 단 월별 환급 가능액 최대한도는 500HKD로, 최대 환급액은 500HKD(약 8만 7,000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하철역 역사에 있는 보조금 컬렉션 기계 또는 개인 휴대폰에 설치한 ‘옥토퍼스 앱’을 통해 환급받아야 함
- 기준액 200HKD, 최대한도 500HKD 규정은 앞으로 변동 가능

시사점

-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및 수송 부문의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
- 대중교통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을 고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 정책 사례
 - 혜택 대상을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아 누구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
 - 복잡한 신청 요건 없이 교통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카드에 충전되도록 하여, 복잡한 과정 없이 쉽고 간편한 혜택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 사례

<https://www.octopus.com.hk/en/consumer/octopus-cards/products/index.html>

<https://www.scmp.com/news/hong-kong/transport/article/2171253/hong-kong-commuters-get-bonus-january-next-government>

<https://www.ptfss.gov.hk/en-main.html#/en-home>

<https://www.ptfss.gov.hk/en-main.html#/en-ope-01>

<https://www.ptfss.gov.hk/en-main.html#/soon>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리는 중국의 수도

중국 베이징시 / 정보·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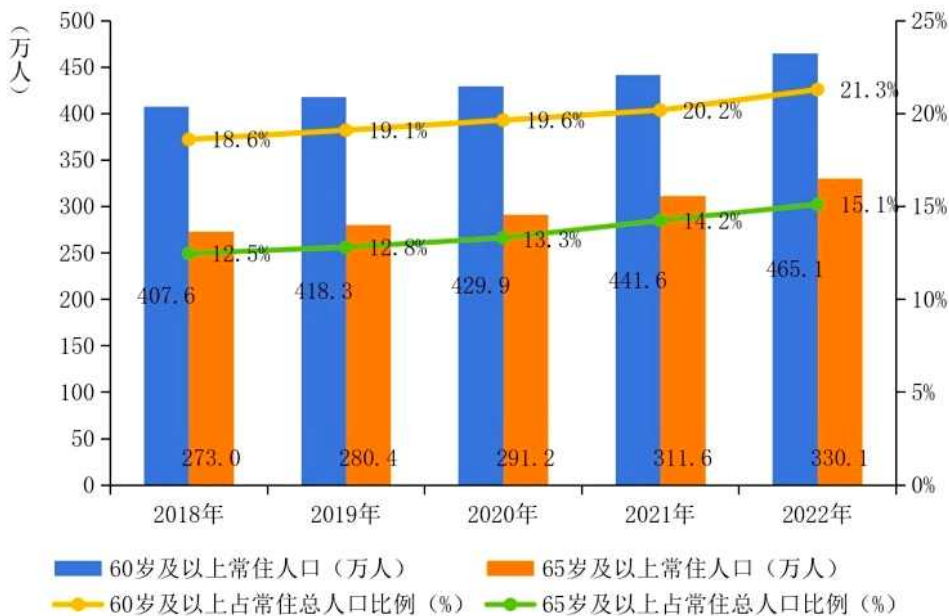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는 2022년 상주인구 2,184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조 1,610억 위안(약 750조 4,800원), 1인당 GDP 19만 300위안(약 3,432만 원) 등으로 여러 조건이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인 메트로폴리스임. 하지만 2021년부터 개혁개방정책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2022년에는 60세 이상 상주인구와 65세 이상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함. 앞으로 2년 동안 베이징시 역사상 가장 많은 상주인구가 60대에 진입하고 출산율은 0점대 아래로 떨어져서, 중국에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리는 대표적인 도시로 부각될 전망

인구 줄어듦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베이징

- 베이징시 정부 산하의 노령공작위원회(老齡工作委員會)와 베이징노령협회, 베이징사범대학 중국공익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가 10월 23일에 발간되고 10월 30일에 대중에 공개됨
 -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가 반영되어 베이징시 인구 구조와 고령화의 현실이 정확히 기재
 - 전국 인구센서스는 중국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조사방법에 따라 수십만 명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동시 진행하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조사
 - 1953년에 처음 제1차가 진행되었고 1990년에 제4차가 진행된 뒤, 10년마다 한 번씩 전국 인구센서스를 진행하여 이듬해에 결과와 분석을 발표
-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2년 말 베이징시 상주인구는 2,184만 명으로, 2021년에 비해 상주인구가 4만 3,000여 명 줄어듦. 이는 개혁개방 정책 이래 처음으로 상주인구가 4,000여 명이 줄어든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이며,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중국의 현실을 보여 줌
 - 2023년 3월에 베이징시가 발표한 《2022년 베이징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2년 베이징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조 1,610억 위안(약 750조 4,800원)으로 상하이시의 4조 4,652억 위안에 뒤이어 중국 도시 중 2위를 차지

- 2022년 베이징시의 1인당 GDP는 19만 300위안(약 3,432만 원)으로 중국 4대 직할시¹⁾ 중 1위를 차지

- 2022년 말 베이징시의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4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함.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3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함
 - 2021년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23만 5,000여 명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18만 5,000여 명이 증가
 - 2022년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5.3%,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5.9%가 늘어나서 베이징시 역사상 최고치의 증가 폭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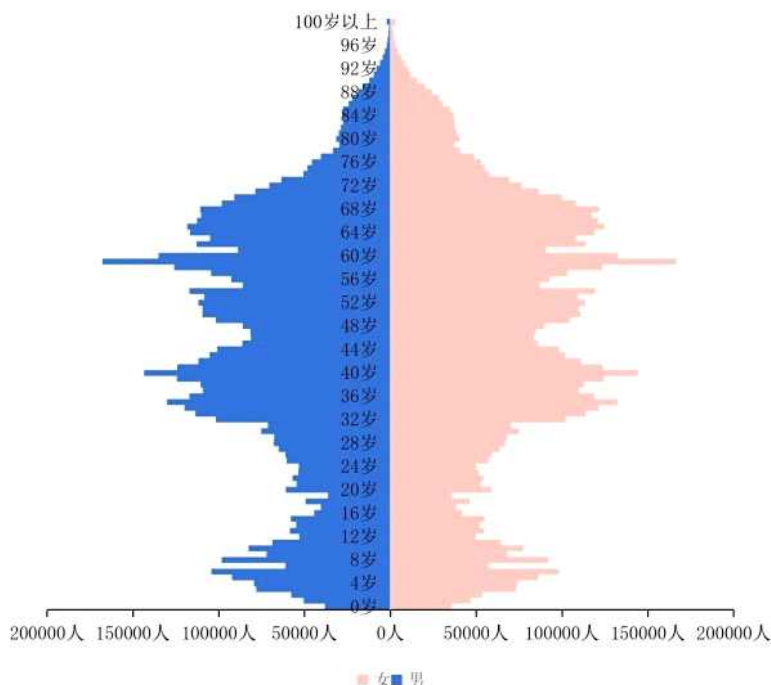


[그림] 2018~2022년 베이징시 상주 노년인구 변동 추이 (출처: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

- 2022년 말 60세 이상의 상주인구 수와 분포를 보면, 65~70세가 114.3만 명으로 27.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음
 - 그 뒤를 이어 60~64세가 112.2만 명으로 27.1%, 70~74세가 74.4만 명으로 18%, 75~79세가 43.2만 명으로 10.4%, 80~84세가 33.7만 명으로 8.1%, 85~89세가 24.7만 명으로 6%, 90~94세가 9.2만 명으로 2.2%, 95~99세가 2.1만 명으로 0.5% 순
 - 100세 이상 상주인구도 1,629명에 달해서 2021년보다 212명이 증가

1) 중국 4대 직할시는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

- 2022년 말 베이징시 상주인구의 피라미드 구성을 살펴보면, 2023년에 베이징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민이 60세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앞으로 10년 동안은 많은 인구가 60세 이상으로 진입할 예정이기에, 베이징시는 노년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린(未富先老)’ 도시가 되는 것
 - 그뿐 아니라 베이징시의 출산율은 상하이시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낮아 1~2년 이내 0점대 아래로 진입할 예정



[그림] 2022년 말 베이징시 상주인구의 피라미드 구성 (출처: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

베이징시가 시행하는 기본 노년사회보장체계

- 베이징시가 노년층을 겨냥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체계는 양로보험, 보조수당, 의료보험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됨
 - 양로보험과 보조수당의 수령 연령은 60세로 한국보다 훨씬 빠르지만, 국가가 규정한 공식 퇴직 연령이 국가기관과 기업체에 근무하는 남자는 60세이고 여성은 50세로 여성이 굉장히 빠름
 - 특히 위험업종에 근무할 경우에 남자는 55세, 여자는 45세에 퇴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절차도 간단하기에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퇴직이 훨씬 빠른 편임

-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처럼 직공기본(職工基本)양로보험과 향촌거주민(鄉村居民)양로보험으로 구분함
 - 직공기본양로보험은 고용하는 직장인이나 노동자의 지급 월급의 16%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따로 납부
 - 직장인과 노동자는 수령 월급 중 8%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납부. 원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는 8%를 더 내서 노후에 양로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향촌거주민양로보험은 본인의 월수입에 따라 12단계로 나뉘서 100~2,000위안을 해마다 납부
- 보조수당은 향촌거주민양로보험에서 베이징시 정부가 보조해 주는 모든 수당을 가리킴
 - 2019년에 제정한 ‘노년양로서비스보조수당관리실시판법(老年人養老服務補貼津貼管理實施辦法)’을 토대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
 - 수입이 적은 농민,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베이징시 정부가 50%를 보조

<https://wjw.beijing.gov.cn/wjwh/ztzl/lhr/ljkzc/lllnfzbg>

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303/t20230321_2941262.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63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11월 1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